테마칼럼 | 김호천의 눈대 | 이세상 e세상 | 빛고을에 살며 | 경제로 세상보기

추석과 화상회의

이상길

"정보통신기기는 수단에 불과하다. 정보문화산업은 인간적인 교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성을 뚜렷이 하고 활용할 때 사람들의 따뜻한 감성도 빨리, 더 많이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예년에 비해 짧은 추석이 끝났다. 그 기간이 길지 않아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여러 이웃 친지들과 가까이 지내며 편안히 쉴 수 있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보낸 사흘이었다.

추석의 가장 큰 의미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수확에 감사 드리고, 조상을 기리는 데에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중국의 중추절이 우리 추석과 유사하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뒤 첫 번째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올리는 날로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정했다. 중국은 우리와 같이 음력 보름으로 월병·석류·대추 등 곡식과 과일을 올려 조상을 기린다. 동그랗게 생긴 팥 빵인 월병은 '모임'을 상징하며, 집안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으면 하는 소망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렇게 추석은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확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서의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함께 물론 각 나라마다 독특한 풍습도 있다. 추석 이후 최근 신문에 보도된 몇 가지 사실을 보면 정보문화가 발달한 우리만의 특이한 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온라인 쇼핑 몰 업체인 옥션에 따르면 올 추석 기간 온라인 쇼핑몰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식품과 생활용품 등 추석관련 상품의 2주간 매출이 전년 추석 기간과 대비해 75% 가량 증가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송편 판매량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단계를 지나 먹는 것까지도 집안에서 편리하게 온라인 쇼핑을 활용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의 융성은 한국만의 독특한 추석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사실은 정보기기의 활용이다. 추석 기간에는 언제나 민족의 대이동이라 불릴 만큼 온 도로가 자동차로 뒤덮여 귀성전쟁을 치른다. 올해는 연휴기간이 짧아 더욱 극심한 귀성, 귀경전쟁이 예상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일부터 3일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 이용차량은 하루 평균 386만대로 지난해 추석연휴기간보다 7.6% 증가했다. 특히 추석 당일의 교통량은 430만여대로 일일 교통량으로는 사상최대를 기록했지만 고속도로상황은 비교적 원활했다고 한다.

고속도로 주요구간별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부산은 8시간10분으로 작년보다 20분이 단축됐고 귀경길 대전~서울구간은 작년보다 1시간 빠른 4시간10분이 걸리는 등 대체로 20~50분 정도 감소되었다. 교통량이 늘었음에도 정체가 줄어든 것은 운전자가 실시간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인터넷과 DMB등 정보기기를 적극 활용하는 지능운전을 했기 때문인데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등을 통한 실시간 교통정보 활용률은 작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최근 이석채 KT회장의 개혁이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화상회의 시스템도입이다. 과거에는 전국에 퍼져있는 지역 법인의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분당 본사로 모였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시간을 아끼라는 회장의 지시로 화상회의 시스템이 도입됐기 때문이다. 공적인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그렇다면 추석 가족상봉을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물론 첨단정보통신기기의 도움으로 가족간에 대화도 나눌 수 있겠고 수확에 감사하는 행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교통전쟁이라는 단어도, 차 안에서 시간을 버리는 괴로움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간의 만남, 수확에 대한 감사를 화상으로 대체해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직접 잡는 손의 따스한 온기와 어머니의 푸근한 품을 정보통신기기가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DMB 등 정보통신기기는 수단에 불과하다. 정보문화산업은 이러한 인간적인 교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성을 뚜렷이 하고 이를 활용할 때 정보문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사람들의 따뜻한 감성도 더욱 빨리, 더욱 많이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이젠 대학교육마저 호남소외 인가

호남지역 대학이 '5+2 광역경제권'의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정부가 각종 대학 지원사업을 하면서 광역경제권을 기준으로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금 규모를 결정해 호남권 대학과 영남권 대학 간의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호남 1개권, 영남 2개권으로 설정된 광역경제권이 경제뿐만 아니라 대학교육마저 호남을 소외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우려했던 광역경제권의 폐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인재양성 대학으로 광역경제권을 기준해 대경권 4개, 동남권 4개 등 영남지역 8개 대학을 선정한 반면 호남권은 4개 대학에 그쳤다. 또한 지원금 규모도 각각 384억원과 194억원으로 호남이 영남의 절반에 불과했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역시 영남권은 5개 대학에 48억원을, 호남은 3개 대학에 27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4년제 대학 국고보조금 규모는 영남권은 33개 대학에 3천112억원인 반면 호남권은 23개 대학에 1천6억원에 지나지 않았다.

문제는 지역경제가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조차 차별을 받는다면 호남권 대학의 경쟁력은 그만큼 뒤처진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학 경쟁력의 하락은 인재 유출로 이어져 지역낙후가 고착화된다는 점이다. 대학교육 격차에 따른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역 간 불균형을 부추기는 '5+2 광역경제권'은 애초부터 잘못 설정됐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런 잘못된 기준을 지역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사업과 대학교육에마저 일괄 적용한다면 국토 균형발전은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학지원 사업만이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농기계 사고급증' 안전공제 가입 확대해야

농기계가 전남지역 농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가 전체 발생건수의 22%를 차지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전국 사망사고 발생 1위를 기록했다.

농기계 사고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농촌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 젊은 층이 농촌을 떠나면서 고령자와 부녀자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계 사용이 늘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고 등 재해 위험 또한 커진다.

허술한 농기계 안전교육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다.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 구입시 판매업체를 통해 간단한 조작법이나 안전수칙을 듣는 것이 고작으로 체계적인 사후 교육이나 관리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사고 급증에 보험 가입마저 극히 부진해 상당수 농민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5세 이상 농민 가운데 안전공제에 가입한 비율이 27%에 그쳤다. 농민 10명 중 7명은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농민들은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농약이나 비료에 의한 사고와 오랫동안 고된 농사일을 해온 탓에 발생하는 근육관절질환이나 신경질환으로 시달리는 농민들이 적지 않다. 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농민들의 작업 재해율이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다.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함께 공제 가입확대가 시급하다. 그러나 재해나 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은 커녕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와 농협, 농기계 제작회사 등이 앞장서서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번기에는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농민들 편의를 위해 야간 진료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

종교칼럼

박철수

영혼이 눈먼이들이여

우리 속담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을 비웃기라도 하듯 경주 최부자는 17세기 중반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외국선에서부터 20세기 중반 일제 강점기 독립자금을 지원한 독립운동가이자 최씨 가문의 마지막 부자인 최준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300년 동안 큰 부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경주 교동에 터를 잡은 최부자는 단순히 돈을 모은 거부만이 아니라 사회적 공헌을 통해 재산을 지혜롭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최부자집 가문의 훈계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흉년에 재산을 늘리지 말라.(재산을 모으되 착취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방 백 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항상 나 자신이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라)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무의식 중에라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내가 가진 것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지 마라) ▲과거는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권력의 자리에 있음은 칼날 위에서 있는 것 같아 언제 자신의 칼에 베일지 모른다. 내가 휘두른 권력의 칼 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온다. 재물과 권력을 함께 갖지말라)

실제로 이들은 춘궁기가 되면 한 달에 곡식 100석을 흉년에는 800석의 곡식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고위 공직자들의 청문회를 보면서 그것이 처음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졸렬하고 비겁하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장군복장을 하지 않고 나와 똑같이 눈물 콧물이 땡땡 얼어버린 전방에서, 상병 계급장을 달고 동료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전직 대통령의 사진은 그동안의 고통스런 졸병 생활을 보상이라도 해주는 듯하였습니다.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치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병역기피는, 의혹만이라도 있었다면 철면피의 정신으로 버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처절한 군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했어야 옳은 일이지요.

그리고 위장 전입, 내 자식 교육을 위해서, 부동산 전망을 위해서 저지른 저들의 범죄는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마저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최고위자는 한 술 더 떠서 그들의 범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범죄가 대단한 것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짓을 더 해야 대단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마태오 15, 14)

〈산수동성당 주임신부〉

기고

김병현

기업가정신 교육이 절실하다

혹시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과 외국 청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으나, 우리 청년들의 높은 위험회피 수준이다. 특히 이는 구직에도 그대로 이어져, 오로지 높은 연봉만 주는 대기업이나 컨설팅회사의 입사만 추구하는 성향이 높아진 것이다. 한번이라도 외국대학 캠퍼스의 창업지원시스템이나 학생들의 도전적 가치관을 경험한다면 그들의 잠재적 성장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이 아는 캄보디아의 왕립크메르 대학의 한 영국인 경영학교수는 요즘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주눅 들지 않고, 미래를 만들고 개척해 나갈 수 있게 기업가정신을 가르친다고 했다. 또한 이것이 가난한 캄보디아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하였다.

기업가라는 단어는 어떤 일의 근원, 새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프랑스 말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기업가정신은 어떤 사업을 일으키고 성공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자기 자신이 결과가 아니라 변화의 원인이 되겠다는 강력한 도전의지를 말한다. 즉 기업가정신은 창업정신인 것이다.

경제학자 슘페터는 기업가는 자본주의의 동력인 '창조적 파괴과정'을 이끄는 혁신가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을 전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만든 동력원도 사실 많은 선구적 기업가들의 창업정신이었다. 물론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업정신이 결여된 것은 국가의 벤처기업 지원 인프라 및 구조적 인센티브 시스템의 문제 등의 복합적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직되고 보수적인 경영교육에 있다고 본다.

본인은 미국공인회계사로써 많은 기업들을 실무적으로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작지만 강한 기업들의 CEO들이 가진 공통요소는 기존 기업 내,외부 환경에서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기회로 만든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발생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기업가정신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결국 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R&D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기업들이 회복속도에서 그렇지 못한 기업들에 비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는 학부에서도 이러한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학생들이 창업의 꿈도 꾸게 만들 수 있으며, 보다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엔진이 될 것이다.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속속 등장하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이런 창업지원프로그램들이 실제 가치창출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은 학생들의 실천일 것이다. 학생들의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있다. 우리 청년들이 또 다른 현대와 삼성의 창조신화를 만들길 기원한다.

〈미국 공인회계사〉

無等鼓

가을의 전설

야구하면 모두가 미국이 종주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야구는 미국에서 생겨난 게 아니다. 영국이 발상지다.

18세기 중반부터 영국에서 행해진 라운더스라는 경기가 모태다. 공을 던지는 투수와 배트로 공을 치는 타자가 있었고 투수가 공을 세 번 던져 치지 못하면 아웃되는 규칙도 이미 존재했다. 다이아몬드 형태의 경기장과 4개의 베이스를 가진 것도 야구와 똑같다. 이것이 이민자들을 통해 미국에 전해져 베이스볼로 발전한 것이다.

콧대 높은 미국사람들은 이런 기원론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그래서 챔피언결정전을 '월드시리즈'라 부르며 자신들의 야구가 세계최고임을 과시했다. 또, 그에 그치지 않고 1907년에는 '야구기원조사위원회'를 구성 "야구는 1839년 애브너 더블데이에 의해 창안됐으며 발생지는 뉴욕의 쿠퍼스 타운"이라는 보고서까지 발표한다.

더블데이는 남북전쟁 당시 포병대위로 북군 최초의 발포 명령자이며 게티즈버그 전투의 영웅인데 그 보고서 덕분에 야구의 창시자로 더 유명하다. 명예의 전당이 쿠퍼스 타운에 자리 잡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더블데이는 쿠퍼스 타운에 가본 적이 없다.

미국이 야구의 발상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대야구의 최고봉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월드시리즈가 열리는 가을만 되면 미국은 야구로 들끓는다. 해마다 새로운 전설이 쓰이고 스타를 탄생시킨다. 그래서 월드시리즈를 '가을의 전설'이라고 부른다.

올 연초 WBC의 성과로 한국 프로야구는 대폭발을 했다. 관중동원은 물론이고 경기의 질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더욱이 호남야구의 종가인 기아타이거즈의 정규리그 우승으로 광주는 그 어느 때보다 야구로 행복했다.

이제 얼마후면 한국시리즈가 열린다. 기아는 전인미답의 V10을 꿈꾸고 있다. 이 고장 광주에서 야구 종주국인 미국 못지않은 '가을의 전설'이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

재고농약 농민에게 덤터기…얌체영업 단속해야

가끔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의 농촌 일손을 돕곤 하는데 농약을 사러 읍내에 나가보면 농약상에서는 농약값을 표시된 소매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받는 경우가 많다. 왜 가격표에 쓰인 것보다 비싸게 받느냐고 따지면은 그건 옛날에 붙여진 표식이고 이제는 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댄다.

판매가격이 표시된 소매 값보다 비싼 농약은 대개 성수기 때 품귀현상이 빚어졌던 것이거나 오랫동안 재고로 쌓여있던 것이라 알고 있다. 그런데 아무 때나 그런 농약을 꺼내놓고 비싸게 받으니 농민들은 속고야 만다.

이러한 현상은 2~3년 전에 출고된 농약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출고된 농약과 같은 값으로 팔기 때문에 일어난다.

농약상이 농약을 한꺼번에 많이 주문했다가 다 팔리지 않았을 경우 반품을 하든지 해야지 재고로 보유했다가 뒤늦게 팔면서 농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나쁜 일이다.

농약상에게 농민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양심적으로 영업해 주기 바라며 행정기관에서도 적절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겠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화재 취약해 보이는 학원에 아이 보내기 '불안'

아이 학원을 알아보기 위해 미술학원과 피아노 학원을 둘러봤다. 하지만 원장과 상담하고 내부 시설을 둘러 본 뒤 학원을 나서는 내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다.

교재와 비품으로 들어찬 교실과 이런저런 미술 도구를 쌓아놓은 물건 투성인 복도는 어찌나 좁아보이던지. 게다가 학원 내부는 실내장식을 위해서였는지 온통 스티로폼 등 불이 나면 잘 타고 유독가스도 확 퍼질 것만 같은 취약한 재료들로 꾸며져 있었다.

학원이 4층이였는데 평소야 엘리베이터를 타고다니지만 불이라도 난다면 어떨까 생각하며 비상구를 내려가 봤다.

학원 아래층은 무슨 간이 봉제업소인 듯한데 이곳도 역시 비상구 복도에 이것저것 크고 작은 봉지에 뭔가를 담아서 수북이 쌓여있다. 내 아이가 다닐 학원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교육의 질은 둘째로 친다 해도 안전만큼이라도 서로들 신경 써주고 정해져 있는 규정도 지키며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

▲김성희·광주시 남구 도금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